

COVID-19로 인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의 변화

김주희¹ · 정은하¹ · 김유린² · 최유리^{3*}

¹한림성심대학교 치위생과 학생, ²신라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³한림성심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Changes in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Due to COVID-19

Ju-Hee Kim¹, Eun-Ha Jung¹, Yu-Rin Kim², Yu-Ri Choi^{3*}

¹Dept. of Dental Hygiene,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Student

²Dep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³Dept. of Dental Hygiene,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reduce the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in college student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about 2 months, beginning in July 2021,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college students due to COVID-19.

Results: The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were the fewest in the medical and health sectors, followed by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others ($p < 0.05$). As the student grade increased, the difficulty with COVID-19 increased by 1.092, and in the humanities and sociology and other departments, the difficulty with COVID-19 increased by 1.108, based on the medical and health departments ($p < 0.05$).

Conclusions: The results obtained here suggest that each university should implement special education programs, such as career aptitude programs, to help students cope with the difficulties they encountered due to COVID-19.

Keywords COVID-19,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University

Received on Jan 10, 2023. Revised on Feb 10, 2023. Accepted on Feb 11, 2023.

* Corresponding Author (E-mail: cyr@hsc.ac.kr)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COVID-19의 증상 및 전염력과 치료법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늦어지면서 팬데믹(pandemic)이라 부르는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집단교육을 시행하는 교육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COVID-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많은 대학교가 온라인강의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비대면 강의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업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와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학업 성취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다[1].

진로방향설정과 전공만족도는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주며, 적응을 하지 못할 경우 학과중도 포기 양상이 나타난다[2]. 특히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학생개인의 영향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변화되어 나타난다. 진로에 대해 결정

할 때 학생들은 여러 가지 진로의 포부나 계획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학교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을 경우 학교나 학과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지며 전공만족도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3]. COVID-19 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COVID-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삶의 질 등에 관한연구[4]등이 실시되어 왔지만 전공만족도와 연계에 대한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나타낸다. 구체적인 목표설정의 동기와 관련된 연구는 개인 성취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극복 노력을 하게 해주며, 과제수행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도 지속적으로 매달리고 초과노력을 하도록 동기화한다고 한다[5].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 적응, 학습몰입, 학업성취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학업과 진로 문제에 학습몰입 수준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6]. 자기효능감의 한 개인의 진로결정수준이 대학 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작용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대학생활의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대학생활에 영향을 주는 큰 요인 중 하나는 전공만족도이다. 전공만족도는 학업적으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대학생활로 적응하고 학업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적성을 고려한 대학입학이 아니라 대학의 명성과 학과의 인지도로 전공을 결정한 경우가 많으며, 입학 후 전공만족도가 더욱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에 영향을 주며 삶의 의미수준도 변화하게 된다[7].

건강한 대학생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첫걸음에서 사회적 큰 변화에 있는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 COVID-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COVID-19와 관련된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전과 후의 전공만족도 변화와 COVID-19로 인한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대학생들의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을 낮추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7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51일간 대학교 재학생인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고 정보 활용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수의 적절성 검증을 위해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0.15, 유의수준 $\alpha=0.05$, 양측검정, 검정력=0.8로 linear multiple regression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를 산출했을 때, 68명으로 확인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140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선별하였고, 성실하지 못한 응답을 한 5명의 자료는 제외하여 최종 135명의 설문응답을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1) 전공만족도

설문 문항은 김과 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고[2,8], 점수는 Likert 5점척도로 매우 그렇다가 5점, 전혀 아니다가 1점으로 조사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 설문내용으로 ‘우리 학과(학부)의 교과 내용에 흥미를 느낀다.’와 ‘우리 학과(학부)의 교육 내용이 전반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 ‘우리 학과(학부) 교수님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목표를 뚜렷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우리 학과(학부) 교수님들은 전공분야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 ‘나는 우리 학과(학부)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 학과(학부)에 대해서 만족한다.’, ‘나는 내가 속한 학과(학부)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Cronbach’ α 는 .855였다.

2) 자기효능감

설문 문항은 김과 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고[2,8], 점수는 Likert 5점척도로 매우 그렇다가 5점, 전혀 아니다가 1점으로 조사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의 내용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와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공 또는 진로목표를 위한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다.’, ‘나는 취업 면접과 관련되는 절차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다.’, ‘나는 가장 원하는 전공이나 직업을 얻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나 다른 진로를 알아볼 수 있다.’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Cronbach’ α 는 .890였다.

3) COVID-19로 인한 어려움

설문 문항은 김과 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고[2,8], 점수는 Likert 5점척도로 매우 그렇다가 5점, 전혀 아니다가 1점으로 조사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COVID-19로 어려움이 큰 것을 의미한다. 설문내용으로 ‘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다.’와 ‘코로나19로 인한 진로 관련한 사고, 행동, 감정에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가 진로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코로나19 이후 당신의 진로 포부나 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Cronbach’ α 는 .766였다.

3. 자료 분석(통계분석)

자료의 통계분석은 IBM SPSS ver. 25.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고, 전공학과를 의료보건계열과 인문사회계열, 그 외 계열로 구분하였다. 그 외 계열은 공학과 IT계열, 자연과학계열을 포함하였다. 전공학과에 따른 성별과 학년의

차이는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고, 전공학과별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대한 차이는 one-way ANOVA, 사후분석은 Ducan test로 하였다. 전공학과별 COVID-19 전과 후의 전공만족도,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의 차이는 one-way ANOVA, 사후분석은 Ducan test로 하였고,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의 관련성은 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대학생의 COVID-19로 인한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고,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전공학과별 성별과 학년 차이

의료보건계열은 45명이고, 인문사회계열은 23명, 그 외 다른 계열은 67명으로 총 135명이 조사되었다. 전공학문에 상관없이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높았고, 의료보건계열은 1학년이, 인문사회계열은 2학년이, 그 외 계열은 4학년이 가장 비중 높았다 <Table 1>.

2. 전공학과별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 차이

전공학과별 자기효능감을 확인한 결과,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와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공 또는 진로 목표를 위한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다.', '나는 취업 면접과 관련되는 절차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다.', '나는 가장 원하는 전공이나 직업을 얻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나 다른 진로를 알아낼 수 있다.'의 모든 항목에서 의료보건계열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인문사회계열, 그

외 계열 순이었다.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와 '나는 가장 원하는 전공이나 직업을 얻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나 다른 진로를 알아낼 수 있다.'를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학과별 전공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우리 학과(학부)의 교과 내용에 흥미를 느낀다.'와 '우리 학과(학부)의 교육 내용이 전반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 '우리 학과(학부) 교수님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목표를 뚜렷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우리 학과(학부) 교수님들은 전공 분야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 '나는 우리 학과(학부)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 학과(학부)에 대해서 만족한다.' '나는 내가 속한 학과(학부)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의 모든 항목에서 의료보건계열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인문사회계열, 그 외 계열 순이었다.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3. 전공학과별 COVID-19 전 후 전공만족도와 COVID-19로 인한 어려움 차이

COVID-19 유행 전과 후의 전공학과별 전공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COVID-19 전에는 그 외 계열에서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COVID-19 후에는 의료보건계열의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COVID-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려움과 진로 관련한 사고, 행동, 감정의 변화정도, 진로에 미친 영향정도, 진로에 대한 포부나 계획에 변화정도가 모두 그 외 계열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인문사회계열로 의료보건계열이 가장 낮았다<Table 3>.

4. 전공만족도와 기효능감,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의 관련성

전공만족도와 기효능감은 양의 관련성이 있으며,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은 음의 관련성이 있었다. 자기효능감과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은 음의 관련성이 있었다<Table 4>.

<Table 1> Comparison of gender and grade differences by major

Classification		Medical and health department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Other departments	p
Gender	Male	3 (6.7)	3 (13.0)	19 (28.4)	0.011
	Female	42 (93.3)	20 (87.0)	48 (71.6)	
Grade	1 grade	18 (40.0)	3 (13.0)	10 (14.9)	p<0.001
	2 grade	15 (33.3)	12 (52.2)	12 (17.9)	
	3 grade	10 (22.2)	4 (17.4)	12 (17.9)	
	4 grade	2 (4.4)	4 (17.4)	33 (49.3)	

*by fisher's exact test, p<0.05

<Table 2> Comparison of differences in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by major

Classification		Medical and health department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Other departments	p
Self-efficacy	Plan	3.20±1.01 ^a	2.96±1.11 ^a	2.78±1.31 ^a	0.183
	Performance continuity	3.62±0.81 ^a	3.52±0.67 ^a	3.03±1.30 ^b	0.011
	Searching ability	3.70±0.82 ^a	3.65±0.71 ^a	3.04±1.22 ^b	0.002
	Employment	3.58±0.81 ^a	3.39±0.84 ^a	2.90±1.20 ^b	0.002
	A reasonable alternative	3.33±0.88 ^a	3.30±1.02 ^{ab}	2.94±1.03 ^a	0.079
Major satisfaction	Interest	3.67±0.88 ^a	3.48±1.04 ^a	2.96±1.17 ^b	0.002
	Organization	3.82±0.75 ^a	3.61±0.58 ^a	2.81±1.00 ^b	<i>p</i> < 0.001
	Professor's explanation	3.91±0.79 ^a	3.52±0.79 ^a	3.01±1.11 ^b	<i>p</i> < 0.001
	Professor's knowledge	4.20±0.66 ^a	4.04±0.77 ^a	3.30±1.27 ^b	<i>p</i> < 0.001
	Learning	3.87±0.79 ^a	3.39±1.03 ^a	2.90±1.23 ^b	<i>p</i> < 0.001
	Satisfaction	3.67±0.80 ^a	3.48±0.79 ^a	2.87±1.15 ^b	<i>p</i> < 0.001
	Pride	3.78±0.82 ^a	3.22±0.80 ^b	2.84±1.30 ^b	<i>p</i> < 0.001

*by one-way ANOVA test, *p*<0.05

<Table 3> Comparison of the difference in major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COVID-19 by major and the difference in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Classification		Medical and health department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Other departments	p
Major satisfaction	Pre_COVID-19	3.49±1.058 ^a	3.70±0.765 ^{ab}	4.09±1.190 ^b	0.015
	Post_COVID-19	3.24±1.069 ^a	3.00±0.798 ^a	2.24±1.256 ^b	<i>p</i> < 0.001
Difficulties due to COVID-19	Mental/Body Changes	2.29±1.04 ^a	2.65±1.23 ^a	3.49±1.34 ^b	<i>p</i> < 0.001
	Behavior/emotional change	2.82±1.23 ^a	2.83±1.19 ^a	3.60±1.22 ^b	0.002
	Influence on major	2.24±1.15 ^a	2.74±1.25 ^a	3.43±1.28 ^b	<i>p</i> < 0.001
	Change of plan	2.67±1.04 ^a	3.13±1.22 ^{ab}	3.52±1.24 ^b	0.001

*by one-way ANOVA test, *p*<0.05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difficulties due to COVID-19

Classification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Difficulties due to COVID-19
Major satisfaction	1		
Self-efficacy	.786**	1	
Difficulties due to COVID-19	-.419**	-.334**	1

*by correlation analysis, **p*<0.05, ***p*<0.01

5. 대학생들의 COVID-19로 인한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COVID-19로 인한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Model 1에서는 전공만족도가 0.281씩 낮아질수록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이 높았다. 전공학과를 포함한 Model 2에서는 의료보건계열에서 인문사회계열과 그 외 계열일수록 1.519씩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이 높았고,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영향력이 없었다. Model 2에 성별과 학년을

포함한 Model 3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1.092씩, 전공학과에서는 의료보건계열에서 인문사회계열과 그 외 계열일수록 1.108씩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이 높았다. 성별과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은 COVID-19로 인한 어려움에 영향력이 없었다 <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in university students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p	β	t	p	β	t	p
Gender							.147	.165	.869
Grade							1.092	3.168	.002
Major department				1.519	3.690	p<0.001	1.108	2.539	.012
Major satisfaction	-.281	-3.338	.001	-.167	-1.938	.055	-.115	-1.345	.181
Self-efficacy	.002	.013	.990	-.049	-.425	.672	-.019	-.167	.868

*by linear regression analysis, $p<0.05$,

Model 1: crude model, Durbin-Watson: 1.932

Model 2: adjusted for Major department, Durbin-Watson: 1.984

Model 3: adjusted for Major department, gender and grade, Durbin-Watson: 1.910

IV. 고찰

COVID-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심리적 변화, 환경적 변화, 행동적 변화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심리적변화로 불안과 공포, 외출 자제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 COVID-19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 2018년도에 시행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였다[9]. 우울과 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개인의 극복력에 따라 상관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0].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며 대학생활에 적응이 어려우면 진로설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11,12].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COVID-19이전에 선택했던 본인의 전공의 미래와 달라지게 되고 생각했던 대학생활과 다른 활동을 하게 되었다. 특히 졸업 후 특정진로가 정해져 있는 학과일 경우 COVID-19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13].

전공학과별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어왔지만[14,15], 대학 입학 후 졸업한 후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COVID-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공학과별 자기효능감에 특히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라는 측면은 전공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COVID-19 전에는 인문사회계열에 대한 전공만족도가 높았지만 COVID-19이후로는 보건의료계열에 대한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COVID-19로 인해 대학생들의 심리적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전공만족도는 교

과만족, 수업만족, 일반만족을 포함하고 인식만족, 취업만족에 관련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기효능감이 강해지게 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3]. 전공만족도가 낮을수록 학과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지며 추후 진로계획과 취업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개개인 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의 변화가 아니라 COVID-19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사회구성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것이다.

많은 대학들이 COVID-19 관련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어왔다[16]. 비대면 강의가 진행될수록 실습교과목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교과목의 대체가 될 수 없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이 있으며 이는 교육품질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17]. 선행연구에 의하면 온라인교육의 서비스품질과 전공만족도는 서로 영향을 받으며, 교육서비스의 가치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밝혀냈다[2].

본 연구결과 COVID-19이후 전공만족도에 대한 영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후에는 COVID-19 전과 비교하여 의료보건계열의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도 의료보건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에서 높게 나타났다.

COVID-19에 의해서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의 영향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가 낮아질수록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이 높았으며 전공학과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다른계열과 달리 의료보건계열에서는 COVID-19로 인한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은 없었다. COVID-19로 인해 많은 의료인력들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에서 COVID-19를 감염방지를 위해 최전선에 싸우는 의료진의 모습은 학과전공관련 학생들에게

졸업후의 동기부여 및 자부심을 일깨워준 것으로 확인된다[18].

또한 관광계열은 COVID-19로 인해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것으로 확인된다. COVID-19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내외 관광 업계가 힘들게 되었고 해외여행 전, 후 자가격리 등과 여행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관광계열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3].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었으며, 연구결과 전공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COVID-19 전후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진로적성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학과별 COVID-19로 인한 전공만족도의 변화와 COVID-19로 인한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대학생들의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는 의료보건계열이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계열, 그 외 계열 순이었다($p < 0.05$).
2. COVID-19 전 전공만족도는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높은 반면 COVID-19 후 전공만족도는 의료보건계열이 가장 높았다($p < 0.05$).
3.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은 의료보건계열이 가장 낮았고, 인문사회계열, 그 외 계열 순이었다($p < 0.05$).
4.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은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높았고, 의료보건계열에서 인문사회계열, 그 외 계열일수록 높았다($p < 0.01$).
5. COVID-19로 인한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1.092씩, 의료보건계열에서 인문사회계열과 그 외 계열일수록 1.108씩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이 높았다($p < 0.05$).

이상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은 전공학과에 따라 COVID-19 후에 전공만족도의 변화가 있었으며 COVID-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COVID-19로 인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공학과별 맞춤형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Jang WH, Choi MJ, Hong HG:A case study on the operation of non-face-to-face experimental class at university with COVID-19 pandemic.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937-966, 2020. DOI: 10.22251/jlcci.2020.20.17.937
2. Na SJ:Effects of online education service quality on education service value and major satisfaction: Focusing on students of the airline service department.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24(6):187-209, 2020. DOI: 10.318604/tmro.2020.24.6.9
3. Shin YM, You EK:The effect of the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tourism.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33(1):117-134, 2021.
4. Kang JH, Bak AR, Han ST: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lifestyle change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due to COVID-19.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4(5):289-297, 2020. DOI: 10.21184/Jkela.2020.7.14.5.289.
5. Chang KM: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6(1):185-196, 2005.
6. Lee SJ:The effect of flow on learning and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2):235-253, 2011.
7. Park AS, Kim HK: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nd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17(2):511-519, 2016. DOI: 10.5762/KAIS.2016.17.2.511
8. Kim GW:The differences in major satisfacti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barrier according to level of vocational interest and self-efficacy.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2017.
9. Kim WH:Stress Management during Corona Virus Disease 19. *The Korean Journal of aerospace & Environmental Medicine* 30:95-99, 2020.
10. Lim HJ, Hwang SH, Lee JY:Relationship between the Life

- Stress,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9(4):18-24, 2021.
DOI: 10.33615/jkohs.2021.9.4.18
11. Kim SY:A convergence study of stress caused by the epidemic of COVID-19 quality of lif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6): 423-431, 2020.
DOI: 10.15207/JKCS.2020.11.6.423
12. Lee JM:An exploratory study on effects of loneliness and youtube addiction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the distance education during COVID-19. *The Korea Contents Society* 20(7):342-351, 2020.
DOI: 10.5392/JKCA.2020.20.07.342
13. Noh SD:Psychological impact and overcoming factors of college students due to the COVID-19 incident. *Theology and Praxis* 72:331-356, 2020.
DOI: 10.14387/jkspth.2020.72.331.
14. DO JN: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majo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dance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Dance* 75(6):89-102, 2017.
DOI: 10.21317/ksd.75.6.5
15. Bae SS, Noh HJ, Min SJ: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by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on job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15(1):45-59, 2014.
16. Lee EJ, Lee MO:Effects of Cognitive Presence on Learning Satisfaction and Persistence in University Online Class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9(4): 70-76, 2021.
DOI: 10.33615/jkohs.2021.9.4.70
17. Jung YS, Gwon MY:Effects of Self-efficacy on Non-face-to-face Online Classes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9(3):51-58, 2021.
DOI: 10.33615/jkohs.2021.9.3.51
18. SH Lee:Mz Generation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image of nurse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3(5):1985-1998, 2022.